

문 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26: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 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시편 110:3; 이사야 32:1-2, 33:22; 고린도전서 15:25;

질문 1: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왕이 되시는가?

질문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써 행하시는 것 3 가지를 적어보라.

질문 3: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4: 우리가 복종하는 것과 우리를 복종케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질문 5: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과 보호 하시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질문 6: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7: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것인가?

질문 8: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우리의 왕이신가?

질문 9: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설명: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그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의 왕국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사야 9:6-7 절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8:36 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심과 그의 왕국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써 행하시는 세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둘째,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것이다. 셋째,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답 26 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되어있지 않다. “우리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왕이 그저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왕은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통치자는 백성으로 부터 반드시 복종을 받아 내는 것이다. 메시아는 완벽한 왕이며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세상의 일반적 왕은 백성의 복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복종하게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복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자의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복종케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과 복종케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우리는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왕과 백성과의 진정한 관계이다. 왕을 향해 어떠한 반문도 불순종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다스림과 보호는 함께 있는 것이다. 보호함이 없는 다스림은 있을 수 없다. 왕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다스림과 보호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김으로 보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써 자기와 우리의 원수를 막아 이기셨다. 나라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왕은 그의 왕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들의 왕좌를 결국에는 잃었다. 그러나 메시야로 오신 예수는 그의 왕국과 왕좌가 굳건하며 영원한 것이다.

마태복음 13 장을 읽고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천국에 대한 비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가? 당신은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이다. 그럼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마태복음 7 장 37 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편 2 편과 사도행전 4 장 25-26 절을 읽고 묵상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 되심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시면서도 그는 자신이 왕 되심을 말씀하셨다. 우편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를 향해 예수님께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23:42-43)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

과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인데 이 교리를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세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많은 기본 신앙의 바탕은 복음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7 개의 세대로 나눠서 읽고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주장한다. 여기서 세대주의를 깊이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대주의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본다.

첫째, 세대주의는 모세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현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 말은 많은 개혁신앙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얼른 들으면 맞을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성경을 아주 외곡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대주의가 다른 세대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가르친다. 사실은 어느 세대에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것은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로 가능했으며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개혁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에 근거하여 성경을 말씀을 읽고 이해 한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다른 세대들의 연결성을 무시한다.

둘째, 세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전천연설을 믿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의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시간이 지연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말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치 구약의 왕들과 같이 지상에 1000 년 왕국을 세우실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는 구별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13 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기록했다.

둘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왕국임을 알아야 한다. (요 18:36; 눅 17:20).

셋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 천년으로 끝나는 왕국이 아니다. (다니엘 2:44; 벧후 1:11)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를 나눠서 구별하고 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부이지만 교회와 왕국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세대주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분리한다면 개톨릭 교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의 통치권 밑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모든것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의 이 두가지 주장이 모두 잘못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과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러므로 그의 왕국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사상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교회를 포함한 다른 모든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것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모든것을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교회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체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다른 분야를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밝게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었었다.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 홀로 그의 왕국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둘째, 진정 구원을 받은자들만 그의 왕국의 백성과 교회의 일원이 된다. 셋째,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서 왕국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의 다른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눈에 보이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된다. (마 16:19). 셋째,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그의 삶을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에 맞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세가지 천년설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먼저 믿는자들을 부활케하신 후에 지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인데 천년이 지난후에 믿지않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심판날이 있는 후에 영원한 나라가 이뤄질것이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대주의 자들은 모두 전천년설을 따르지만 전천년설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세대주의 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전천년설을 따르는자들 가운데는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도 있다.

후천년설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왕권과 다스리심이 점점더 이 세상에서 왕성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것이며 그 기간이 찬 후에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 의로움과 평화로 가득차게 되는 천년왕국이 서게 될 것인데 (혹 복음에서 떠날자 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죽은자들을 부활시키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것이며 그 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무천년설은 어떤 지상의 천년왕국도 믿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선한것과 악한것이 이 세상에 늘 함께 존재 할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추수 할 때까지 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고없이 어느날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이며 죽은 모든 자들을 부활케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무천년설이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보다 성경적으로 우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언제일런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후천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있는 후에 이르기엔 성경과는 맞지않다. (행 1:7; 마 24:36, 딤후 5:1)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실 날을 미리 알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성경은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고 있다. (히 1:2, 요 6:39, 11:24, 12:48, 행 2:17, 딤후 3:1) 그렇다면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천년왕국이 말세후에 있을 수가 없다. 이미 말세가 끝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때 까지 함께 자랄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지상에서의 의와 평화의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맞지 않는 것이다.